

■ 화 제 의 인 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우암동...”

제1호 남구명예구민 선정에 이어 명예시민증 받은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

“부산의 명예시민이 됐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50여 년간 부산과 부산사람을 위해 헌신해 온 독일인 하 안토니오 몬시뇰 (89)신부가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지난 98년 제1호 남구명예구민으로 선정된 독일인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89세)는 53년간 부산에 살며 부산사람 보다 더 부산을 아끼고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하 신부는 1958년 독일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그 며칠 후 낯설고 먼 한국 땅을 밟았다.

그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을 겪은 다음이어서 최악의 상황이었다. 특히 부산은 척박한 현실을 뚫고 부딪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는 피란민들이 많았다.

하 신부는 1959년 우암동 동향성당 주임신부로 부임, 사제로서의 사명을 시작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든 채 성당에서 사목 활동만 할 수 없었던 그는 직접 가난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했다. 고아들을 데려다가 사제관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행려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 사업을 시작했다. 동향성당에서 시작한 ‘사랑의 집’은 현재 삼랑진에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가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하 신부는 젊은이들의 기술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1965년 3월에는 한독기술학원을 열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이들은 기술학원으로 모였다. 이 기술 학원은 한독여자

실업학교(현 문화여고)로 발전하여 많은 기술인과 기능인을 배출했다. 이 후 한독여자실업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교회 조산원’을 열어 1992년까지 가난한 산모들의 출산을 도왔다. 많은 아기가 태어났으며 1980년부터는 어린이날이 되면 그 해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를 초대 해 어린이날 대잔치를 열어 주는 등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하 신부의 어머니 역시 1964년 집과 재산을 처분 해 ‘사랑의 집’ 건립비로 기부하고 자신은 독일의 시립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하 신부는 부산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환갑 때 독일 친인척 40여 명이 부산에 와서 여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눴을 때 참 행복했다고 회고한다. 하 신부는 현재도 89세의 나이를 뛰어넘은 삶을 살고 있다. 1964년부터 시작해 온 교회일치 운동에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사단법인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의 한국 본부장으로서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1974년부터 매년 5월 13일 임진각에서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큰 행사를 열고 있다.

하 신부는 오늘도 자신의 애창곡 ‘나의 고향’을 개사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우암동...’을 부르며 그의 끊임없는 부산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최정순 기자

■ 사 랫 과 사 랫

포토 에세이집 출간



무는 곳에 인생이 있다’ (도시출판하)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가로 명성이 높은 최민식 씨는 이번 에세이집에서 1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삶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부산문화대상 수상



사 수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

남구생활체육회 회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이날 세 자녀를 갖는 가정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을 증대시켜온 공로로 상패와 함께 2,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주민편의 위주 업무 처리로 인기만점

■ 오 른 도 친 절 지 기

감만동 김 하 나 씨



감만1동에 살고 있는 최성식 씨는 “표준 말을 쓰고 인상이 좋으며 업무진행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직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엽서를 통해 감만1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하나(행정8급·29) 씨를 친절 공무원으로 간주했다.

김지완 씨도 하나 씨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준 덕에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칭찬의 글을 보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감만1동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 할인카드(장애인)를 분실해 가까운 동네에 갔더니 주민등록상 등으로 가라고 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감만1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더니 하나 씨가 현지 직원과 통화를 한 후 팩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다고. 또한 수수료도 차후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고 대신 납부해줘 출장 업무를 무시하 마칠 수 있었다며 웅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해 준 하나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이 오륙도 친절지기로 추천한 김하나 씨는 2007년 11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4년차 새내기다. 현재 감만1동 주민센터에서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미소를

민원 진행 상황 자세히 설명

민원폭주 속에도 미소 잃지 않아

잃지 않고 민원인을 대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있다.

어릴 적 꿈은 성악가였지만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어 공무원이 되었다는 하나 씨는 문화와 함께 삶을 가꾸는 남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항상 미소와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민센터를 찾아 주는 한분 한분이 저의 부모님이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면 짜증날 일도 즐겁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한 웃음과 친절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 하나 씨를 바라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 상이 바로 이것이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선자 기자

“남구 위상 높였어요”

남구60대축구동우회 전국대회 준우승

오륙도여성합창단 새마을합창제 장려상



남구60대축구동우회 회원들이 준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남구주민들로 구성된 체육·예술단체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잇달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산 남구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남구60대축구동우회(회장 강만우)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북 남원에서 열린 제30회 국민생활체육전국연합회장기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부산을 대표해 단일팀으로 출전한 동우회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과 충남, 대구 팀을 차례대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 서울 노원구팀과 결승전에서 만난 동우회는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종료 휘슬 2분을 남겨두고 통란의 1점을 내줘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대양축구회 소속 김장유씨는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단장 김옥련)도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합창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전국 1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합창단은 고영호 지휘로 William Tell Overture와 두껍기 문지기 등 2곡을 불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절제된 음색과 환상적인 화음은 이날 참석한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오륙도여성합창단이 경북 구미에서 열린 새마을합창제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다.

안겨주었다.

합창단은 최근 부산시합창페스티벌에서 동상을, 부산국제합창제에서 최우수상, 창원그랑프리합창제에서 특별상을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오고 있다.

주영란 기자

■ 우리 구 사 랫 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1억 기금 목표 달성한

서영교 용호1동장학회장



용호1동 장학회는 1995년에 처음 구성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2008년부터 뜻있는 주민들의 장학기금 출연으로 2009년 2월 재 창립되어, 현재 1억에 가까운 기금으로 성장했다.

특히, 장학기금 1억원 돌파와 장학기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자, 올 11월에 ‘장학기금 1억원 돌파기념 현판 제작 계정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판에는 장학금 기탁자 등 103명의 이름이 새겨질 계획이었다.

먼 길 인줄 알았던 1억 기금! 1차 목표 달성을 이뤘듯 빨리 이를 수 있어 감개가 무량하다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2차 목표로 장학기금 출연자를 계속 찾고 있다며 밝은 미소를 짓는다.

개인의 이익에 급급한 현대 사회에, 작은 빛줄기처럼 봉사에 힘을 쏟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서 회장은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남구 체육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을 위한 봉사에도 열심이다. ☎807-6723

조을홍 기자

사랑과 배려로 화목한 생활

아름다운 가정상 받은

임영철·이지숙 씨 부부



대연4동에 살고 있는 임영철·이지숙 씨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선정돼 지난 7월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상을 받았다.

영철(40)씨 가정은 노부모와 자녀, 그리고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시누이가 함께 모여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서로를 아끼며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과 동시에 분가해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살다가 동생의 결혼과 때를 맞춰 합가했다. 노부모와 장애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국민주택 규모의 빌라에 살며 일곱 식구가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가족간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영철씨는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며 일정한 소득으로 일곱 식구를 부양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아내인 지수씨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임시직원으로 일하며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뭐든 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 두 자녀 교육은 주로 방과 후 특별활동과 바우처사업을 활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두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재학 중이며 부모의 바른 가르침과 대가족 속에서 품소 익힌 예절을 실천하며 밝게 생활해 담임교사는 물론 주변 어른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서각미술대전 입선

이 수 홍 전 총무국장

이수홍 전 총무국장<사진>이 제4회 대한민국 서각미술대전에서 입선했다. 대한민국서각미술협회 등이 주최한 이번 대전에서 이수홍 씨는 ‘배화’와 ‘장미’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수홍 씨는 “취미생활로 시작한

서각이 자칫 무료할 수 있었던 퇴직 후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며 “후배 공무원들도 삶의 질과 건강을 지켜 줄 수 있는 취미생활을 즐기길 바란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 우리 숨 씨 어 때 요 ?



한빛어린이집 아람3반 ‘바닷속 이야기’

문현4동 한빛어린이집 아람3반 어린이들이 여름철을 맞아 ‘바닷속 이야기’라는 주제의 공작품을 만들었다. 원생들은 작품을 만드는 시간 내내 물고기와 갈매기, 파도, 해초 등을 그리며 시원한 여름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실제 요리 사진입니다!!!

제사·폐백·이바지 음식

예약문의 626-0662

홍동백서 위치: 남천동 해변시장

집안 풍습에 따라 맞춤형 주문 가능합니다 //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들어 당일 배송

| 남구주민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2011년 8월 8일 | | | | | | |
|---|--------------------|--|-----------------------------|-----|-------|-------|
| 수강료: 6만원 월, 수, 금 10: 00~11: 00 (10명) | | 초보자 컴퓨터 확실히 익히기 인터넷검색, 이메일 보내기, 카페만들어 사진올리기 | | | | |
| 대상: 남구주민(주부, 노인, 실직자) 선착순 10명 | | | | | | |
| 국비 노동부 | | 계좌제(실업자) 훈련안내 | | | | |
| 과정명 | 개강일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정원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CAD실무 | 8월 개강 (화월연의) | 2개월 | 11: 00~13: 00 (월~금, 주5일) | 10명 | 12만원 | 48만원 |
| 전산실무자격증 (워드, 엑셀자격증) | | | 11: 00~13: 00 (월~금, 주5일) | 10명 | 10만원 | 40만원 |
| 사무직전문가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 | | 13: 30~15: 30 (월~금, 주5일) | 10명 | 10만원 | 40만원 |
| 대학졸업자, 일반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는 분 (교통비 월 5만원 지급, 선착순 마감) | | | | | | |
| 대연북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옆, 베이직하우스 8층 | | | | | | |



매화



장미